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불만족이 만족의 3.4배 수준인 것은 국민의 정서상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책입안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회귀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음을 감안하여 적정보험료의 산출과 보험적용의 확대 등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KSPM-55

Balanced Scorecard기법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지사수준 -

신의철¹⁾, 최수미¹⁾, 정기택²⁾, 김양균²⁾

(1)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2)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목적: 2000년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자조직은 분산관리되던 운영형태를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재탄생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대한 조직으로서 관리운영상 문제점들 즉, 경직화, 획일화, 관료화 등의 비효율성이 일관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관료제 조직의 전형적 문제점인 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 자유결여, 행동의 경직성, 고객을 상대하는데 어려움 등은 공단의 역할변신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으로 의사결정조직의 분권화(책임경영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조직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를 다시 그 조직이나 구성원에게 환류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조직성과 평가체계가 존재하나 조직이념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평가의 균형성 저하 및 피동성, 지사간 평가의 형평성이 저조하고 자체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B.S.C.기법을 도입·적용하여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성과평가지표를 개발·제시하고자한다.

방법: 조직성과평가체계와 관련한 자료, 문헌들을 수집·고찰하였다. 기존 지사수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특성을 새로이 분류하였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결과: 현행 평가지표에 대해 Balanced Scorecard 기법을 이용하여 전문가 조사를 한 결과 적절한 평가지표에 대해 B.S.C. 4개영역별로 분류하였다. 총 12개의 지표를 개발·제시하였는데 고객측면 지표로는 외부고객만족도, 전화응대도, 재무측면 지표로는 지역(체납)보험료 징수실적, 직장(체납)보험료 징수실적, 업무과정측면 지표로는 자격병동 처리실적, 사업장 지도점검, 직장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실적, 지역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실적, 부당수급 처리실적, 건강검진 사업실적, 학습 및 성장측면 지표로는 제안제도 운영실적, 업무개선 노력도가 있었다 (자세한 결과 발표물 참조).

결론: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지사의 평가지표 제안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향후 지사 중 대표적 표본을 대상으로 B.S.C. 기법에 대한 현장적용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단계별 확산이 필요하고 우선 전 지사수준, 지역본부 그리고 공단 본부로 그 수준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따른 효과적 평가결과 환류체계의 정립을 위한 방법으로 보상체계 개발도 요구된다.

KSPM-59

조기사망에 따른 상실생존년수(YLL)를 활용한 주요 암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1990-2002) 연구

Measuring the Health Inequalities among Different Socioeconomic Groups: Based on Years of Life Lost Due to Major Cancers(1990-2002)

신현우¹⁾, 윤석준²⁾, 홍석원³⁾, 이희영²⁾, 안형식²⁾

(1)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목적: 우리나라 주요암 질환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를 질병부담 측정지표인 조기사망에 의한 상실건강년수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수행하였다.

방법: 1990년에서 2002년까지 통계청 사망원인 전산자료와 생명표를 활용하여 각 연령별 표준기대여명, 사망자의 연령, 사망원인, 직업, 성별, 주소지, 교육수준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소득자료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Proxy 변수로 사용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으로 구분하였고, 직업변수는 육체노동자, 비육체노동자, 비생산자, 무직으로 나누었고, 주소지는 대도시, 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에 따른 주요 암질환의 조기사망으로 인한 상실건강년수(years of life lost due to premature death : YLL)를 산출하였다.

결과: 남성의 조기사망으로 인한 상실생존년수가 위암의 경우 여성의 1.784배 폐암은 2.787배 간암은 3.827배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 모든 암에서 초졸과 무학이 가장 YLL 값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YLL값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YLL값이 높게 나타났다. 암종별로 볼때 위암은 연도별 교육수준의 격차가 적어지고 있는 반면 폐암은 교육수준에 따라 YLL의 차이가 더 커지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런 현상은 남·여 모두에서 나타났다. 결혼상태와 관련하여는 남자 위암의 경우 유배우에 비해 이혼이 1.845배 YLL값이 높았고, 사별은 2.814배 높았다. 폐암의 경우는 이혼이 유배우에 비해 1.567배, 사별은 3.305배로 나타났다. 간암의 경우는 이혼이 유배우에 비해 2.545배로 사별 1.812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모든 암에서 유배우, 이혼, 사별 순으로 YLL이 높아졌다.

결론: 사회경제적 상태가 건강의 불평등에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요암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건강의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의 측정도구로 YLL을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도 사회경제적

상태가 주요 암의 건강불평등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과 성별 불평등, 그리고 결혼상태 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3년간의 시계열로 보았을 때도 뚜렷히 나타났다. 향후 주요 암 관리정책에 있어 사회경제적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SPM-104

성인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미충족의료 연구

Unmet Need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BPH) in Community-based Survey of Elderly Men

김한해¹⁾, 박혜숙²⁾, 이훈재³⁾, 권성원⁴⁾, 허영주⁵⁾, 정유진⁶⁾, 문옥륜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4)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5)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사과, (6) 양천구 보건소

목적: 연령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립선비대증은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그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남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립선비대증은 조기발견·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 남성들은 전립선비대증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노령화에 따른 경제 능력도 저하되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전립선비대증의 유병률과 의료이용률을 파악하여, 전립선비대증의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선정된 서울시 양천구 지역의 50세~80세 성인 남성인구 1,021명을 대상으로 검진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검진을 통하여 밝혀진 하부요로증상과 전립선비대증의 유병률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료필요를 규명하고, 실제 의료이용실태와 미충족의료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전체 641명이 전립선비대증 역학조사에 참여하였으며(참여율 62.8%), 이 중 경증 이상의 하부요로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이용여부에 관한 조사에 충실히 응한 경우는 501명(78.2%)이었다. 경증 이상의 하부요로증상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경우는 105명(21.0%),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396명(79.0%)이었고,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5.9%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로증상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량분석 결과, 연령이 높고,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며, 전용주거면적이 좁고, 용돈이 적고, 경제상태를 '보통이하'라고 생각할수록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각증상의 시작 시기가 비교적 짧고, 중증도가 경하며, 자가인식 건강상태나 배뇨관련 삶의 질이 좋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로증상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상태, 자각증상 시작시기, 그리고 배뇨관련 삶의 질이 유의한 변수로 남았다.

한편, 검진 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었으면서 의료이용여부에 관한 조사에 충실히 응답한 116명 가운데에서는 병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6명(31.0%)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80명(69.0%)이었다. 전립선비대증이 있으면서도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서도 하부요로증상만 가진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60.3%를 차지하였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전용주거면적이 좁고(교차비 4.19, 95%신뢰구간 1.68-10.46),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교차비 2.71, 95%신뢰구간 1.10-6.69)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하부요로증상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세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의료이용에는 경제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을 조기발견·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KSPM-130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organ donation for brain dead people

문옥륜¹⁾, 이철형¹⁾, 김귀현¹⁾, 황보혜민¹⁾, 김진희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뇌사자의 장기기증 건수의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증가시켜서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첫째, 뇌사자의 유족지원방안과 그에 대한 지원기금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둘째, 생체이식 및 사후 장기의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셋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고찰방법으로 우리나라 장기기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하고, 외국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 국내외 문헌과 법령안등을 검색해서 심층 분석하는 방법이다. 둘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 81명과 수혜자 54명, 그리고 장기이식대기자 79명으로 총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으로써 일반인 253명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설문자료를 SPSS 10.0 statistics package를 이용하여 기초 통계 뿐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장기기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면접방식으로 KONOS 직원들과 이식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부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회견형식으로 수집하였다.

결과: 첫째, 뇌사판정기준의 인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는 대상자(p-value = 0.001)와 사회단체참여여부(p-val-